

매일 밤 BTS 환상 공연...에버랜드 '오버 더 유니버스'

오는 18일부터 8월 28일 포시즌스 가든 야외 무대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히트곡 멀티미디어 쇼

글로벌 톱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환상적인 콘서트가 매일 밤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린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방탄소년단이 등장하는 세계 유일 멀티미디어 쇼 '오버 더 유니버스'(Over the Universe)를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포시즌스 가든' 야외 무대에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방탄소년단 히트곡들을 영상, 음향, 불꽃, 조명 등 특수효과가 어우러진 상설 멀티미디어 쇼 형태로 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세계 최초다. 에버랜드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

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하고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와 약 4개월간 이를 준비했다. 매일 밤 약 15분씩 펼쳐질 오버 더 유니버스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히트곡 7곡을 새롭게 편집한 뮤직비디오 영상과 음악으로 선보인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차트 정상에 오른 'Dynamite'(다이너마이트)와 지난해 빌보드 최장 기간 1위를 기록 'Butter'(버터)를 비롯해 'Permission To Dance'(퍼미션 투 댄스) '쩨어'(Dope) 'DNA' '봄날' 'Make it Right'(메이크 잇 라이트) 등

이다. 특히 에버랜드의 거대한 무대 스케일과 최첨단 공연 장비를 통해 관객에게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할 태세다. 희망적인 가사를 노래하면서 파워풀한 군무를 선보이는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영상들이 길이 24m, 높이 11m 규모 LED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된다. 약 1만㎡ 규모 포시즌스 가든 어디에서도 관람 가능하다. 서치라이트, 레이저, 파이어, 불꽃 등 각종 특수효과가 공연 내내 노래와 어우러지며 화려함을 더한다. 피날레는 에버랜드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Dynamite'가 장식한다. 불꽃 5000여발이 밤하늘을 환상적으로 수놓는다. 에버랜드는 실제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상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머시브



음향 시스템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쇼는 에버랜드 이용객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관계자는 "최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린 방탄소년단 서울 콘서트 열기가 에버랜드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탄소년단이 선사하는 신나는 멀티미디어 쇼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희망과 위로를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린마더스 클럽' 이요원, 칼각 정복스틸 공개



배우 이요원과 추자연이 녹색어머니회 정복을 입고 칼각 자태를 뽐냈다. JTBC 새 수목드라마 '그린마더스 클럽'에서 활동 준비를 마친 이요원(이은표 역), 추자연(변준희 역), 김규리(서진하 역), 장혜진(김영미 역), 주민경(박윤주 역) 다섯 배우가 정복을 입고 찍은 스틸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배우들은 칼각을 자랑하는 녹

다음달 6일 JTBC 첫방송 색어머니회 정복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깃발 등 소품을 활용하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고 팔짱을 끼는 등 벌써부터 촬영장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실제로 사진을 찍는 촬영장의 분위기 또한 매우 훈훈했다는 후문이다. 정복을 입고 나온 서로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주고,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각도와 자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그린마더스클럽'은 초등 커뮤니티의 민낯과 동네 학부모들의 위험한 관계망을 담아낸 드라마다. 손예진 주연의 '서른, 아홉' 후속으로 4월6일 오후 10시30분 첫방송된다.

몬스타엑스 기현, 첫 싱글 '보이저' 프리뷰 영상 공개

오늘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통해 발매



그들 '몬스타엑스(MONSTA X)' 기현이 첫 번째 싱글앨범 '보이저(VOYAGER)'의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13일 몬스타엑스 공식 SNS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타이틀곡 '보이저' '콤폴(Comma)' '레인(RAIN)' 등 총 세 개의 하이라이트 음원이 담겼다. 영상에서 기현은 하늘색 니트를 입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유와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이다. 지구본과 나침반같은 소품을 통해 그와 함께 떠날 첫 번째 음악 여행의 시작을

암시했다. 타이틀곡 '보이저'는 중독성 강한 베이스와 기타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다. 록 보컬리스트로 변신한 기현의 시원한 보이스와 긴장감을 높여주는 드럼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수록곡 '콤폴'은 기현만의 독보적인 감성을 드러낸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에담(Edam)이 참여했고, 기현은 처음으로 작사에 이름을 올렸다. 기현의 목소리는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내며 "잠시라도 숨쉬고 싶어, 내 안에 작은 점이 되어줘"라는 가사를 노트에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트랙 '레인'은 이별의 감정을 비에 빗대어 표현했다.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분위기로 시작해 생생한 감정과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신스 베이스가 매력적이다. 폭발적이고 드라마틱한 후렴구에 기현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한편 기현의 첫 번째 싱글 '보이저'는 15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하이브, 日 '골드디스크 대상' 싹쓸이

BTS, 10관왕으로 '해의 아티스트 최다관왕' 기록 경신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제36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10관왕을 차지하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해의 아티스트 최다관왕' 기록을 경신했다. 14일 일본 레코드 협회가 발표한 '제36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수상자 명단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9개 부문에서 10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베스트 아시안 아티스트'를 포함해 '앨범 오브 더 이어', '베스트 3 앨범', '뮤직비디오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팝송 부문, '베스트 5 송 바이 다운로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스트리밍', '베스트 5 송 바이 스트리밍'(2곡 수상) 등이다. 작년에 8관왕을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은 올해에는 10관왕에 올라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 역대 해의 아티스트 최다관왕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특히 이들은 '베스트 아티스트' 아시아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앨범 오브 더 이어', '베스트 3 앨범' 부문에는 방탄소년단이 2021년 6월 발표한 일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THE BEST)'가 이름을 올렸다. 작년 5월 발매된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는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베스트 5 송 바이 다운로드',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스트리밍', '베스트 5 송 바이 스트리밍' 등 4관왕을 차지했다. '베스트 5 송 바이 스트리밍' 부문에서는 작년 7월 발매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도 수상 명단에 올라 방탄소년단은 1개 부문에서 2개 곡으로 수상했다. 작년 10월에 공개된 방탄소년단과 콜드플레이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는 '송 오브 더 이어 바이 다운로드' 팝송 부문을 차지했다. '뮤직비디오 오브 더 이어' 부문에서는

2020년 10월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 'BTS 맵 오브 더 솔 울(MAP OF THE SOUL ON:E)'의 실황을 담은 DVD가 수상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언제나 큰 사랑을 주시는 아미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께 따뜻한 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은 한 해 동안 음반 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아티스트와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일본의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발매된 음반, 뮤직비디오 등의 판매 실적에 따라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제36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선 방탄소년단을 포함 하이브 레이블즈 소속 그룹들이 대거 활약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인 그룹 '세븐틴(SVT)'의 미니 9집 '아타카(Attacca)'는 '베스트 3 앨범' 아시아 부문에 선정됐다. 세븐틴은 지난해 일본 두 번째 미니 앨범 '24H'로 '베스트 3 앨범' 아시아 부문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빅히트 뮤직 소속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일본 첫 EP '카오틱 원더랜드(Chaotic Wonderland)'로 '베스트 3 앨범' 부문에서 수상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지난해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부문 수상에 이어 올해에는 '베스트 3 앨범'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2년 연속 수상에 성공했다. 또 빌리프랩 소속인 '엔하이픈'은 이번 시상식에서 '뉴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와 '베스트 3 뉴 아티스트' 등 2개 부문을 받았다. 엔하이픈은 해당 시상식에서 이번이 처음 수상했다.

핫펠트 "페미니즘 범죄처럼 변해"...PD수첩 젠더갈등 조영

오늘 오후 10시30분 MBC 방송

그들 '원더걸스' 출신 핫펠트(예은)가 페미니즘 소신을 밝힌다. 15일 오후 10시30분 방송하는 MBC TV 시사교양물 'PD수첩'은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온라인상에서의 페미니즘 백래시(반발)를 통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을 짚어본다. 핫펠트는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SNS에 감상평을 올린 후 끊임없이 악플에 시달렸다. 안티 페미니즘 세력들은 핫펠트가 활동을 할 때마다 물러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고 저격 동영상까지 만들었다. '페미니스트'라는 이유에서다. 핫펠트는 악플러들의 인신 공격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드는 대신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인터뷰에 응했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폭력을 써도 되는 존재처럼 변했다"며 "사실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을 공격하는 유튜브도 대폭 늘었다. 유튜브 '뽀빠'는 BJ 잠미를 '매갈'로 낙인 찍어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비난 받았다. PD수첩 취재 결과 뽀빠의 전체 영상 866개 중 283개가 여성혐오와 안티페미니즘 요소를 담고 있었다.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뽀빠가 여성을 공격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9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젠더 키워드가 남초 커뮤니티와 유튜브, 정치권으로 퍼지며 갈등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2년간 분포 매커니즘도 분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뒤흔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20대 남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열광했다. 실제로 여가부 폐지 공약 1주일 후 20대 남성의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2배 이상 급등했다. PD수첩이 만난 20대 남성들은 '여성가족부는 여성 우대 정책으로 오히려 남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대 여성들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 대신 여성가족부로 엉뚱한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둘러싼 20대 남녀 입장이 상반되는 이유와 출범 22년 만에 부처 존재론에 휩싸인 여성가족부의 현주소를 진단할 예정이다.

그래도 최민식...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주말 1위



배우 최민식이 주연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감독 박동훈)가 개봉 첫 주말 박스오

2위 '더 배트맨' 피스 1위를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는 11~13일 1357개관에서 13만9906명을 끌어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24만6226명이다. 이 영화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와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수학을 포기하기 직전인 학생의 이야기를 그린다. 고등학생 '한지우'가 우연한 기회에 학교 경비원에게 수학을 배우게 되고 두 사람이 우정을 쌓아가는 도중에 그 경

비원이 복한의 천재 수학자 '이학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최민식이 이학성을, 신인배우 김동휘가 한지우를 연기했다. 박병은·박해준 등이 출연했고, 연출은 박동훈 감독이 맡았다. '더 배트맨'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에 밀려 한 계단 내려왔다. '더 배트맨'은 같은 기간 11만119명이 봤다. 누적 관객수는 73만3821명이다. 이 작품은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 '배트맨' 브루스 웨인을 맡은 새로운 배트맨 영화다.